

총체용 백류의 총채수량 및 영양가 변화에 관한 연구

백류연구소 延圭復 李春雨* 張暎熙

영남대학교 李錫淳

충북대학교 朴然圭

Study on Forage Productivity and Value in Whole Crop Barley, Wheat and Triticale

Wheat and barley research institute

Kyu Bok Youn, Choon Woo Lee and Young Hee Jang
Yeungnam university

Suk Soon Le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Youn Kyu Park

實驗目的

보리, 밀, 신기호밀의 出穗後 日數에 따른 總體收量의 變化와 飼料的 價值
를 分析하여 사일리지 製造를 위한 割取 適期을 究明하고자함.

材料 및 方法

을보리, 그루밀 및 신기호밀을 供試하여 出穗期, 出穗後 7, 14, 21日
그리고 黃熟期에 割取하여 器官別 收量 및 粗成分을 分析하였고, 回歸分析
에 의하여 最適 割取 時期를 求하였다.

結果 및 考察

- 乾物 收量은 신기호밀이 207kg/10a로 가장 많았으며 밀은 1410kg, 보리는 1170kg/10a였다.
- 이삭, 줄기, 잎의 比率은 세品种 공히 出穗後 日數가 經過함에 따라
이삭의 比率이 增加하였고 특히 보리는 黃熟期에 이삭의 比率이 50.5%
로 호밀, 밀에 비하여 높았다.
- 水分의 變化는 보리가 出穗後 7日, 밀은 14日, 신기호밀은 21日
以降에 減少 程度가 특하었다.
- 飼料成分의 變化는 세品种 공히 出穗後 日數가 經過함에 따라 粗蛋白,
粗脂肪의 含量은 減少하나 可溶無氮素의 含量은 增加하였고 粗纖維
의 含量은 減少하나 신기호밀에서는 오히려 增加하였다.
- 水分, 飼料成分, 後作物인 벼의 移秧時期 등을 考慮할 때 總體用 보리 밀의
割取適期는 出穗後 23, 신기호밀은 24日이었다.

